

척추 손상자의 심리적 욕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윤 창 구

Abstract

A Study of Psychological needs of the Spinal Cord Injury Patients

Chang Goo Yoon, R.P.T Dept. of Rehabilitation Medicine,
Hanyang University Hospital

To evaluate the psychological needs of the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we studied 25 cases, by means of need diagnosis ; need for abasement, achievement, affiliation, aggression, dorminance, emotionality, exhibitionism, sex, autonomy. In comparison with control group that was psychologically healthy consist of 23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so, the following are factors that influence on these needs.

- 1) The more the mind & heart was unstable the higher, the need for emotionality.
- 2) The need for sex was not affected by the influence of the degree of education, level of spinal cord injury and duration, a mild difference was noticed among the degree of pain and motivation.
- 3) The need for autonomy was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and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rried group than single group.

차 례

I. 서 론

ABSTRACT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1. 척수손상
 2. 심리적 욕구의 분석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IV. 연구결과
 - V. 고 찰
 - VI. 결 론
- 참고문헌

기계문명의 발달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는 날로 증가하고¹⁾ 있으며, 또 산업의 발달과 사회의 복잡성이 더해갈수록 척수손상자는 늘어가고, 이들 척수손상자들은 신경학적, 신체적 또는 심폐기능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4,7,10)}. 또한 척수손상 환자들의 대부분은 청장년후에 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단지 척수손상 환자 당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학적으로나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치료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척수손상자의 심리적 변화 과정과 이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만족할만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의료의 발달로 말미암아 척수손상자의 여명이 정상인의 80% 이상이라는 보고가 인정되고 있어서 척수손상자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적응을 돕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8,9)}

척수손상자의 심리적 적응과정에 대하여 Bray¹⁰⁾는 세단계, 즉 불안기, 적응기, 동화기로 나누어 단계적인 심리적 변화를 거쳐 적응되어 간다고 하였고, Guttman¹¹⁾은 크게 쇼크기와 자각기 즉 자신의 불구상태를 인지하고 적응하여 가는 시기로 나누었다.

이렇게 척수손상 후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심리적 욕구의 변화도 예상되어 성격을 형성하는 일차적 하위 개념인 욕구를 진단하여 척수손상 후 사회를 살아가면서 정상인들과의 욕구나 그 변화가 얼마만큼 되는가를 측정하여 개발시켜주는 노력도 재활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Murray¹⁸⁾의 욕구이론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욕구를 검사하도록 1965년 황⁵⁾이 제작한 바 있는 욕구진단검사를 이용하여 척수손상자의 욕구력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척수손상자의 욕구가 정상인의 욕구와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여 척수손상자에게서 지극히 떨어지는 심리적 욕구를 보상해줄 수 있는 재활치료의 근거를 마련하여 척수손상자들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척수손상(spinal cord injury)

척수손상에 대한 인식은 B.C. 1700년부터 시작 근년에 이르러 Guttman⁶⁾, Bedbrook¹²⁾등 여러 학자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척수 및 신경근의 손상은 손상기전, 손상부위, 손상정도, 동반된 손상, 정확한 신경학적 검사와 진단 등이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반드시 척추손상의 정도와 척수 및 신경근의 손상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³⁾

1979년에 미국에서 조사한 척수손상 환자 53%

는 사지마비이고, 남자가 82%다. 1985년에 조사한 우리나라 통계는 92%는 남자이고, 평균 발생 연령 29세, 장애인 평균 연령은 34세이며 73%가 사고원인이었다.

1) 손상기전(mechanism of injury)

하반신 마비(paraplegia)는 하지와 구간을 포함한 부분의 마비이며, 상지까지 포함되었을 때는 사지마비(quadruplegia)라 한다. 경추의 골절 및 탈구는 급격한 굴곡이나 신전 회전의 힘으로 발생되는데, 산재사고, 교통사고, 높은데서 떨어지거나, 직접적인 타격으로 올 수 있다.

척추손상 직후에는 손상부위의 하방에 이완성마비가 발생하며, 이를 척추 쇼크시기(spinal shock period)라고 하며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는데 그후 손상부위와 정도에 따라서 영구히 이완마비로 남거나, 아니면 경련성 마비로 변하여, 신전근군에 경련성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척추손상 후에 혈관장애와 생화학적 변화로 손상절에 괴사와 경색이 일어나나 아직 손상 후의 척수혈류 감소에 관한 기전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축삭(axon)이나 혈관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도 산소결핍증(hypoxia), 부종, 그리고 결국에는 경색에 이끄는 2차적 요인이 있을 것이며 Osterholm 등의 손상부위에서 norepinephrine의 작용으로 심한 맥관수축을 일으켜 척수의 허혈(ischemia)과 출혈성 괴사의 원인이 된다. 또한 척수손상은 선천성 결함이나 감염 및 질병에서도 발생되나 그 원인보다는 손상척수부위가 문제되며 환자 재활의 도달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2) 손상부위에 따른 장애

- (1) C₅이상의 병변: 전자 차의자(electric wheel chair)를 이용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다.
- (2) C₇-T₁ 병변: 요 실금(urinary incontinence)이 문제되고 하복부를 두드리거나 항문확장으로 배뇨, 배변을 조절하지만 실금이 늘 문제가 된다. 차의자를 이용하여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 (3) T₂-T₆ 병변: 상기 방법으로 배뇨, 배변을 조절하고 훈련이 잘되면 차의자를 사용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4) T₇-T₁₂ 병변 : 방광과 장관은 상부 운동신경원 형태이고 상기 방법으로 조절하며 장하지 보조기를 착용 보행이 가능하나 실제 생활에는 큰 도움은 안되고 차의자 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다.

(5) L₁-L₃ 병변 : 방광과 장관의 기능조절이 가능하고 만약 척수반사가 남아있으면 방광은 하복부를 두드려서 배뇨하고 항문확장으로 배변케 한다.

방광의 외부괄약근의 저항이 있으면 괄약근 절개술(sphincterotomy)로 배뇨케한다.

장하지보조기 착용과 목발사용으로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다.

(6) L₄-S 병변 : 처음에는 배뇨 배변장애가 있으나 교정이 가능하며 방광경부 수술로 요실금을 치료한다.

3) 척수 손상환자의 치료

척수손상 환자의 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의사와 치료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팀들의 긴밀한 협조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료의 큰 문제점은 외상성후의 환자관리와 운송과정 및 적절한 조기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으로 장애발생은 더욱 중하게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 환자의 치료는 응급처치에서부터 전인적인 치료가 불가피하여 사고발생에서 급성기 치료를 가장 적합하게 할 수 있는 특수병원까지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안전수송계획이 필요하며, 또한 사회복구를 위한 포괄적 재활치료가 중요한 치료가 될 것이다.

4) 척수손상자의 사회생활

척수손상자의 사회 복귀는 재활이 궁극목적이다. 장애자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하려는 의욕과 또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태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척수손상후에 나타나는 장애로 환자들은 거의 모두 음울한 심리반응을 보이나 이것은 정상적인 심리반응이며 점차 이에 적응하고 재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과 동기(motivation)를 주도록 심리적 지도는 필요하게 된다.

2. 심리적 욕구의 분석

욕구는 장기발생적 혹은 생리적 욕구(일차적 욕구)와 심리발생적 욕구(이차적 욕구)로 나눌수 있다. 본 조사에서는 주로 후자의 심리발생적 욕구 중 몇가지 변인을 측정하였다. 그 변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해당성 척도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굴종의 욕구(need for abasement) : Aba

외부의 힘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 상해, 비난, 비판, 벌을 받아드리는 것, 모든 것을 피할수 없는 운명으로 체념해 버리는 것, 일이 잘못되면 죄악감을 느끼며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욕구이다. 공격의 욕구(Agg)와 반대되는 변인이며 이것이 사회적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노예이다.

2) 성취의 욕구(need for achievement) : Ach

남보다 어려운 일을 해 보려는 것, 자연, 인간, 사상을 지배하고 조직하는 것, 될수 있는대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을 해 내는 것, 방해를 극복하고 높은 표준에 도달하는 것, 권위자가 되는 것 등으로 대표되는 욕구이다. 이러한 욕구가 기초가 되어 야심적, 경쟁적, 열정적 성격 특성 및 태도가 형성된다. 학업에서의 성공이나 사업에서의 성공 및 국가적 발전에도 이 성취의 욕구는 깊은 관련이 있다.

3) 친애의 욕구(need for affiliation) : Aff

이것은 인간에 대해 정의의 방향으로 나타나는 추향성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게 가까이하여 즐겁게 협력하고 애정을 교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혼자 있기보다 여러 사람과 같이 있기를 좋아하는 욕구이다.

4) 공격의 욕구(need for aggression : Agg)

신체적으로는 힘으로 반대를 극복하는 것, 싸우는 것, 상해에 대해 보복하는 것, 대상에 공격을 가해서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것 등이며, 언어적인 공격으로는 중상모략 하는 것, 일이 잘못되

면 남을 탓하는 것 등이다. 공격의 욕구는 분노의 정서를 수반한다. 그래서 지배할 수 없을 때는 억지로라도 지배하려고 한다. 이 욕구는 반대, 침해 받을 때 생긴다. 따라서 존경의 욕구와는 반대되는 것이나 지배, 자유의 욕구와는 융합할 수 있다. 공격의 욕구가 성의 욕구와 융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행동이 새디즘(sadism)이라는 병리적 현상이다.

5) 지배의 욕구(need for dominance) : Dom

인간의 환경을 지배하려는 것, 암시, 유혹, 설득, 명령에 의해 대상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 갈려는 것, 남을 구속하고 금지시키는 것, 자기 의견의 정당성을 남에게 설득 시키는 것, 모든 결정권은 자기가 갖고 감독·지휘하는 것 등이 밀바침이 된 욕구이다.

6) 정동의 욕구(need for emotionality) : Emot

이 변인은 현재적 정서(manifest emotionality) 혹은 정서 표출이나 내관에 의해 보고된 느껴지는 정서의 빈도나 강도 및 지속도에 의해 평가된다.

흥분을 잘하는 것, 조그만 자극에도 불안, 공포, 슬픔의 정서를 잘 나타내는 것,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기분의 동요가 심한 것, 자칫하면 땀을 흘리거나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뛰는 것 등이다.

7) 과시의 욕구(need for exhibitionism) : Exh

남의 인상에 남기려는 것, 남의 주의를 끌려는 것, 남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고 놀라게 해 주려는 욕구이다. 이 욕구에서 나타나는 감정은 허영과 화려 및 자신감이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굴욕회피(infavoidance)의 욕구 및 비난을 무서워하는 비난회피(blamavoidance)의 욕구와 갈등되는 욕구이다.

8) 성의 욕구(need for sex) : Sex

이성과 성애적 관계를 형성하여 촉진하는 것, 이성과 함께 행동하고 생활하고 싶어 하는 것, 이성의 신체에 접촉하고자 하는 것, 이성에 관한 화제에 관심을 갖는 욕구이다. 이 욕구는 취득(acquisition)의 욕구, 비난의 욕구, 굴욕회피의

욕구, 거부욕구와 갈등을 일으키며, 비정상적인 사회적 형태로 나타나면 매춘이 된다.

가벼운 병적 현상으로는 성적공상, 성적인 꿈을 빈번히 꾸는 경우가 많다.

9) 자율의 욕구(need for autonomy) : Aut

자유롭게 되는 것, 구속을 벗어 나는 것, 감금에서 벗어나는 것, 강제나 구속권위에 저항하는 것, 독립에서 자유로운 행동에 의해 행하는 것, 어떤 것에도 억매이지 않고 책임을 피하고 인습에 억매이지 않은 것, 어떤 결정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마음대로 하려는 욕구이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989년 11월 20일 현재 한양대학병원과 보훈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22세부터 65세까지의 환자 25명(남자 24명, 여자 1명)을 연구대상군으로 하였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성인 23명(남자 17명, 여자 6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이 두 군 모두에서 욕구진단검사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여 욕구진단검사의 9가지 임상척도 즉 굴종(Aba), 성취(Ach), 친애(Aff), 공격(Agg), 지배(Dom), 정동(Emot), 과시(Exh), 성(Sex), 자율(Aut)욕구의 점수를 구하였다. 또 척수 손상자의 요인에 따른 심리적 욕구의 변화를 연구대상군에 대하여 면담과 병록지 조사에 의하여 성별 및 연령분포, 척수손상부위, 손상정도, 결혼상태, 손상후 경과기간, 교육정도, 동통의 정도 그리고 활동성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정상대조군과 척수 손상자간의 심리적 욕구의 각 척도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 하였고, 척수 손상자군의 상기 7개의 요인에 대한 심리적 욕구의 각 척도의 유의성을 평가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정상대조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특히 요인이나 기왕력을 가지지않는 한국인 성인 23명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이들은 남자가 17명(73.91%)이었으며, 여자는 6명(26.09%)이었고 평균 연령은 28.2±9.6세 이었다.

2) 척수손상군(표1)

- (1) 성별 및 연령분포 : 연구대상 25명 중 남자가 24명(96%)이었으며, 여자는 1명(4%)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34.6±6.7세이었으며, 22세에서 65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 (2) 척수손상 부위 : 척수 손상 부위는 흉수부가 12명(48%)이었고, 경수부도 12명(47%) 그리고 요수부가 1명(4%)이었다. 이를 사지마비군과 하지마비군으로 나눈 결과 사지마비군이 12명(48%)이고, 하지마비군이 13명(52%)이었다.
- (3) 결혼상태 : 기혼인 척수손상자는 19명(76%)이었으며, 미혼인 경우가 6명(24%)이었다.
- (4) 척수손상 후 경과기간 : 척수손상 후 검사일까지 경과기간이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가 15명(60%)이었으며, 그 이상 경과한 경우가 10명(40%)이었다. 이 기준은 척수손상후 심리적인

-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1년 6개월 내지 2년이라는¹³⁾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 것이다.
- (5) 교육정도 : 중졸 이하가 6명(24%)이었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9명(76%)이었다.
- (6) 동통의 정도 : 동통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5명(20%)이었고, 동통이 없거나, 있어도 일상생활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가 20명(80%)이었다.
- (7) 활동성 : 침상에 한정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경우 또는 의자차 운전이 의한 이동이 가능하지만 기능적이지 않은 경우가 10명(40%)이었으며, 의자차 운전이 기능적이거나, 보조기와 목발을 사용하여 단독보행이 가능한 자가 15명(60%)이었다.

표 1. 척수 손상자의 요인별 분포

	실수(%)		실수(%)
성별		교육정도	
남	24(96)	중졸이상	6(24)
여	1(4)	고졸이상	19(76)
척수 손상부위		동통의 정도	
사지마비	12(48)	심한 통증	5(20)
하지마비	13(52)	약한(없거나)통증	20(80)
결혼상태		활동성	
기혼	19(76)	의자차 운전이 불편	10(40)
미혼	6(24)	의자차 운전이 가능함	15(60)
척수 손상 후 경과기간			
1년 6개월 이하	15(60)		
1년 6개월 이상	10(40)		

3) 정상대조군과 척수손상자군의 욱구 진단점사의 평가

정상 대조군의 욱구 진단점사 점수의 평균은 욱구 진단점사의 백분위 점수표에 의거하여 조사한 결과 굴중욕구 점수가 54.56, 성취욕구 점수가 50.62, 친애욕구 점수가 70.81, 공격욕구 점수가 43.54, 지배욕구 점수가 61.51, 정동욕구 점수가

38.86, 과시욕구 점수가 52.12, 성욕구 점수가 54.55, 자율욕구 점수가 57.91이었다.

척수손상자군의 욱구진단 검사점수의 평균은 굴중욕구 점수가 55.88, 성취욕구점수가 51.17, 친애욕구 점수가 74.67, 공격욕구 점수가 40.07, 지배욕구 점수가 58.67, 정동욕구 점수가 50.11, 과시욕구 점수가 53.09, 성욕구 점수가 44.42, 자율

■ 정상 대조군 □ 척수손상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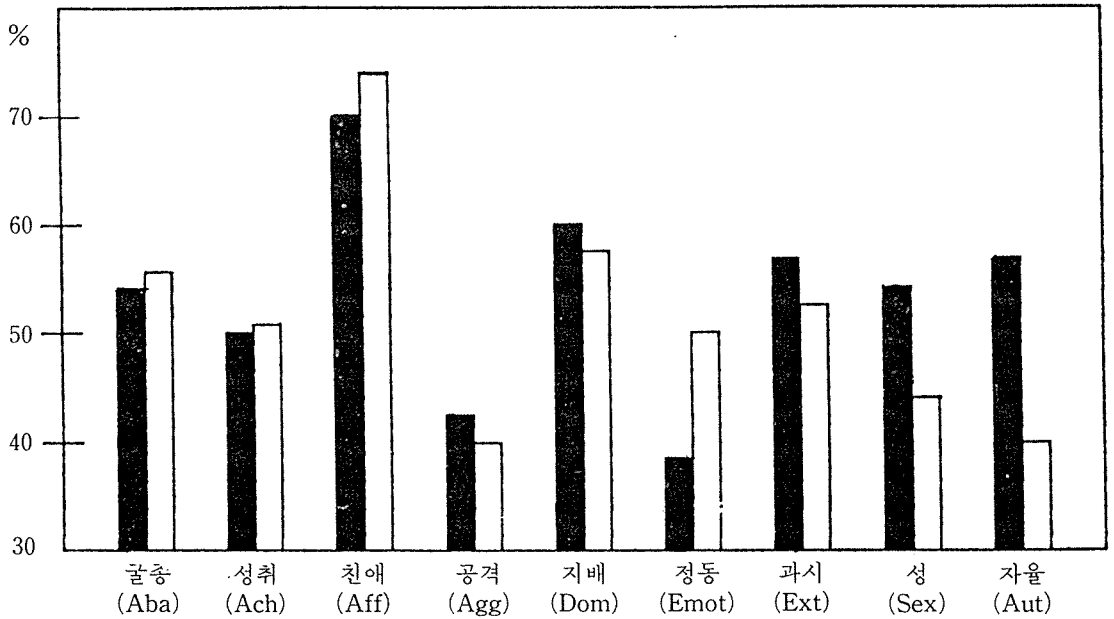


그림 1. 정상대조군과 척수손상자군의 욕구진단 대조

욕구 점수가 40.03이었다.

이들 두 연구 대상군의 욕구 진단 검사 점수를 대조 비교한 결과 정상 대조군이 척수손상자군에 비하여 성욕구(sex), 자율욕구(aut)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정동욕구(emot)는 유의적으로 낮은 차이를 보였다(그림 1).

4) 척수손상자군의 요인별 욕구력의 평가

척수손상자군의 요인별 욕구력을 욕구진단 검사의 백분위 점수표에 의거 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표 2).

표 2. 척수 손상자군의 요인별 욕구력 평가(%)

	굴중 (Aba)	성취 (Ach)	친애 (Aff)	공격 (Agg)	지배 (Dom)	정동 (Emot)	과시 (Ext)	성 (Sex)	자율 (Aut)
사지마비	54.46	45.38	63.42	38.57	55.07	46.86	52.57	37.01	37.61
하지마비	57.30	56.95	85.87	41.57	56.33	50.58	50.29	47.19	46.41
기 혼	55.17	48.24	73.14	39.42	57.14	48.26	51.42	40.24	51.60
미 혼	56.59	45.09	76.15	40.72	54.26	49.18	51.44	43.96	32.42
1 1/2년 이하	60.21	44.21	71.27	42.24	53.21	47.36	48.22	41.28	39.67
1 1/2년 이상	51.55	58.12	78.03	37.90	58.19	50.08	54.64	42.92	44.35
중졸이상	55.17	52.13	76.21	40.21	54.24	50.63	53.27	43.21	42.28
고졸이상	56.59	50.20	73.08	39.93	57.16	46.81	49.59	40.99	41.74
심한 통증	58.12	42.37	76.87	38.17	55.17	46.42	50.21	38.63	39.21
약한(없거나) 통증	53.64	59.96	72.42	41.97	56.23	51.02	52.65	45.57	44.81
의자차 운전불편	52.42	42.09	65.08	41.28	57.47	49.27	53.23	37.88	45.63
의자차 운전가능	59.34	59.34	84.21	38.86	53.93	47.17	49.63	46.32	38.39

(1) 척수손상부위 : 전신마비군에 비하여 하지마비군의 성취욕구(ach), 친애욕구(aff), 성욕구(sex)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과시욕구(ext) 점수가 낮았다(그림 2).

(2) 결혼상태 : 기혼인 척수손상자군이 미혼인 척수손상자군에 비하여 지배욕구(dom), 자율욕구(aut)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성욕구(sex) 점수가 낮았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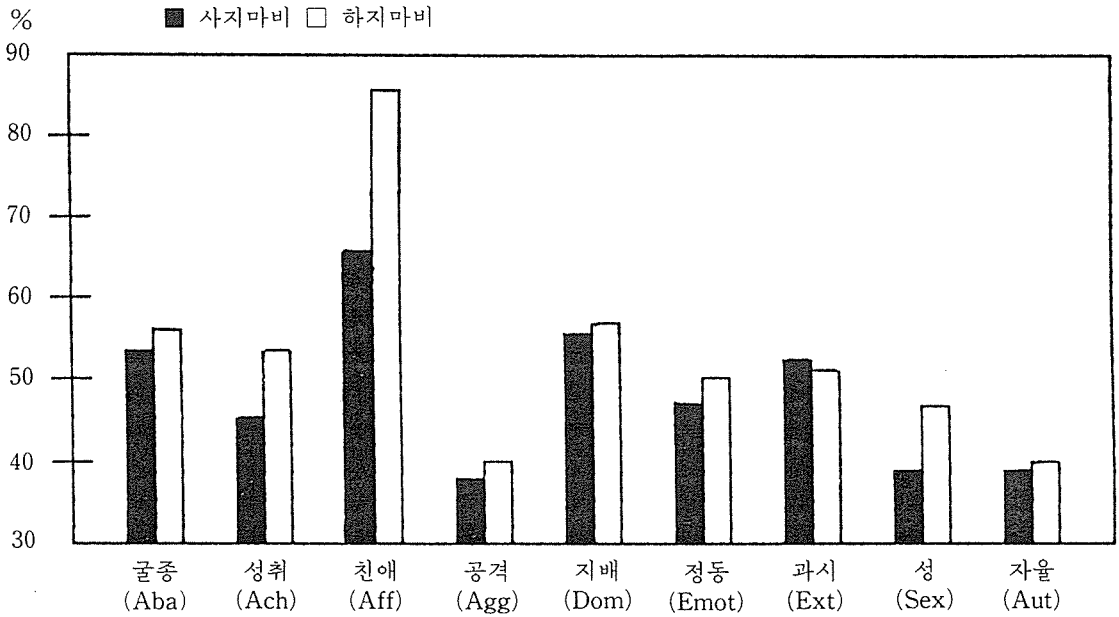


그림 2. 척수손상자의 부위별 욕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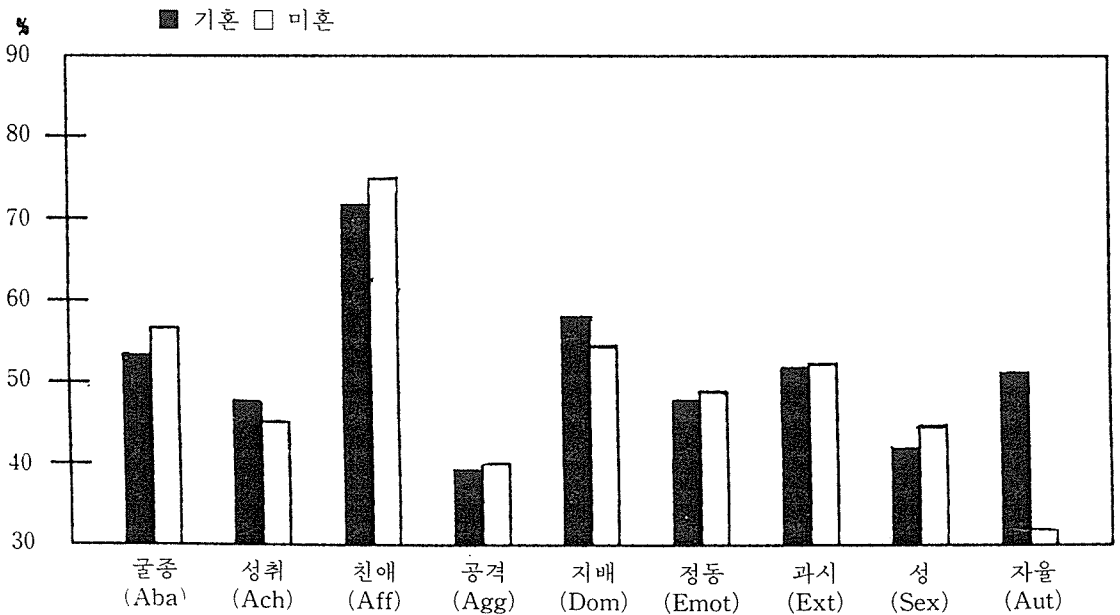


그림 3. 척수손상자의 결혼상태에 따른 욕구 점수

(3) 손상후 경과기간 : 손상후 1년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척수손상자군이 그 이상 경과한 군에 비하여 굴중욕구(aba), 성취욕구(ach)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친애욕구(aff), 지배욕구(dom), 과시욕구(ext), 자율욕구(aut)가 유의

적으로 낮았다(그림 4).

(4) 교육정도 : 중졸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척수손상자군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척수손상자군과의 심리적 욕구의 유의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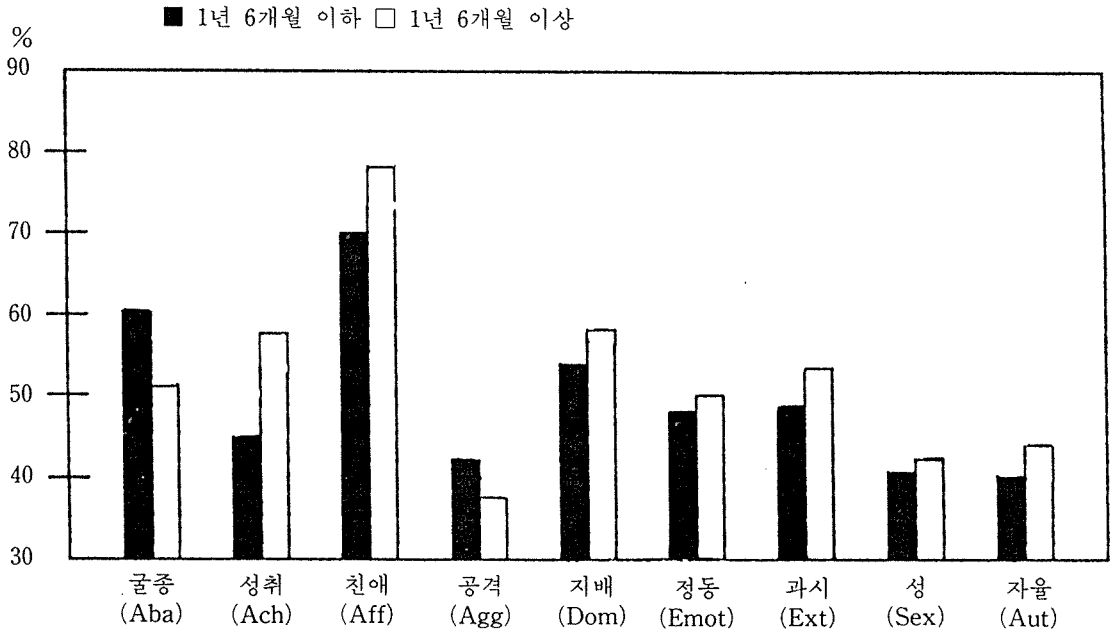


그림 4. 척수손상자의 손상후 경과기간에 따른 욕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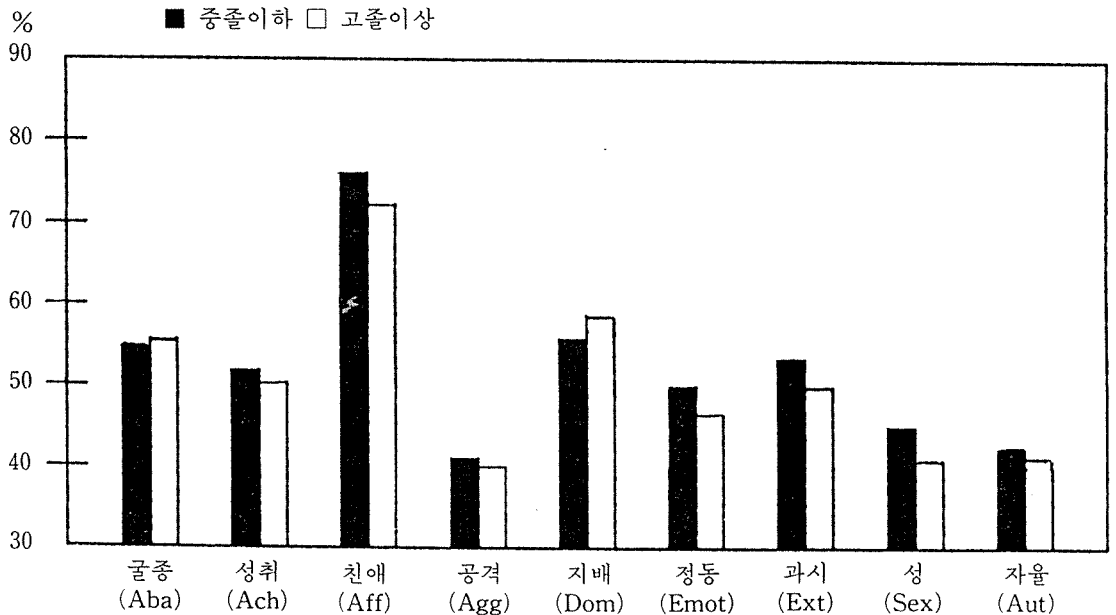


그림 5. 척수손상자의 교육정도에 따른 욕구 점수

(5) 동통의 정도 : 동통이 심하여 이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 척수손상자군이 성취욕구(ach), 성욕구(sex), 자율욕구(aut)가 유의적으로 낮았다(그림 6).

(6) 활동성의 정도 : 의자차 운전이 기능적이고 활동성이 있는 척수손상자군이 성취욕구(ach), 친애욕구(aff), 성욕구(sex)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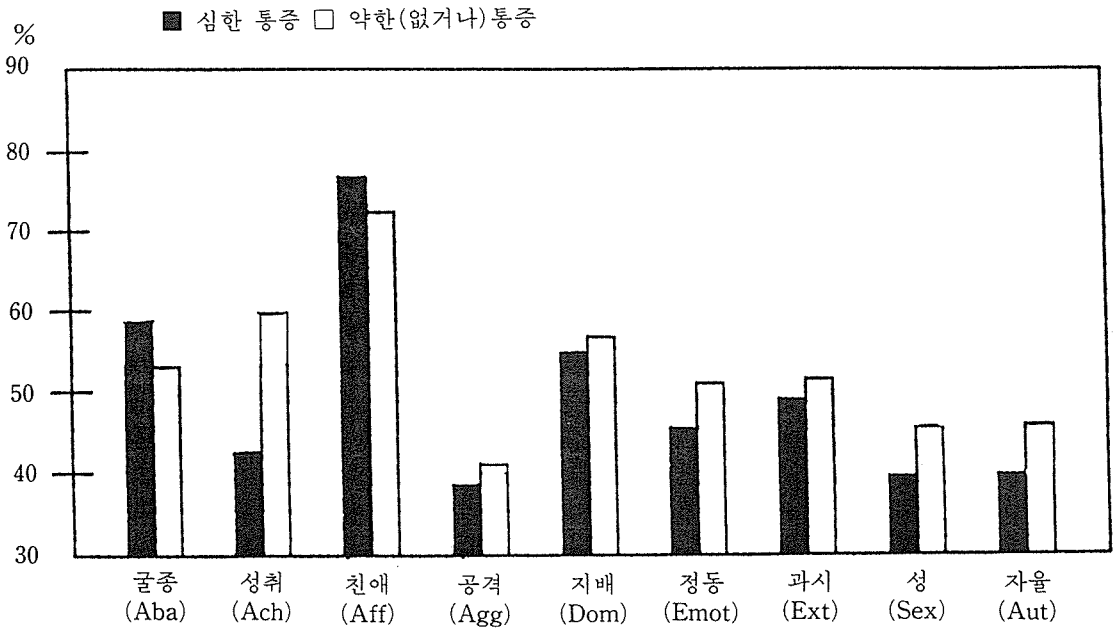


그림 6. 척수손상자의 동통의 정도에 따른 욕구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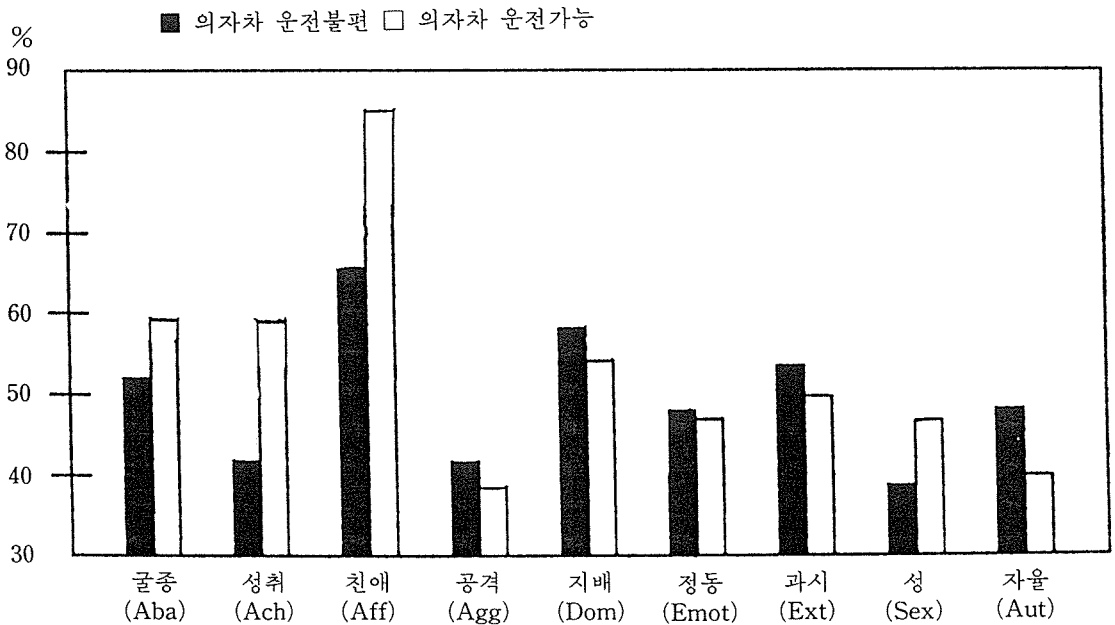


그림 7. 척수손상자의 활동성의 정도에 따른 욕구 점수

V. 고 찰

인간의 욕구력은 성격의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지만 반면에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에 적절한 적응을 기하기 위해서도 약간의 변화가 수반된다. 척수손상자의 급성기에는 생명구조를 위한 의학적 처치가 우선 되어져야 하지만 의학적 상태가 일단 안정되게 되면 척수손상자들에게는 심리적인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9,16,19} 또 이들의 심리적 적응과정에는 손상전의 성격과 신체기능의 제한, 특히 성기능과 배뇨기능의 장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3,14,17} 그리고 척수손상자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적응하여 가는데는 손상전 성격과 새로이 가지게 된 장애에 대한 심리적 반응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정적,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0,13}

그러므로 척수손상자의 긍정적인 욕구 개발과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참여를 위해서는 욕구진단검사를 통하여 현저하게 낮아지는 욕구력을 발견하여 보상하여 주고 또 특이하게 높아지는 욕구력을 측정하여 억제시켜주므로써 척수손상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남다른 특이 성격을 갖지 않도록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굴중 욕구점수에서는 정상대조군과 척수손상자군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척수손상자군에서는 손상 후 경과기간이 1년6개월 이하에 있는 척수손상자군의 굴중욕구 점수가 낮았으며 교육정도가 높은 군의 굴중욕구 점수가 높았고 성취욕구 점수에서도 정상대조군과 척수손상자군의 욕구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척수손상자군에서는 하지마비군의 사지마비군보다 높았으며 손상기간이 1년6개월 이하인 군이 높게 나타났다. 또 친애욕구 점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척수손상군에서 하지마비군과 통증이 없는 군, 또 활동성이 있는 군이 높게 나타났다. 공격욕구 점수에 있어서는 정상대조군이 척수손상자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척수손상자군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지배욕구 점수에서도 정상대조군이나 척수손상자군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정동욕구 점수에서는 정상대조군보다 척수손상자군이 높게 나타났고 척수손상자군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과시욕구 점수에서도 정상대조군이 척

수손상자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척수손상자군에서 손상 정도가 경할수록, 활동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율욕구 점수에서는 정상대조군이 척수손상자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척수손상자군에서는 손상정도가 경할수록 또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척수손상자의 욕구진단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척수손상자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제공되길 기대한다.

VI. 결 론

척수손상자의 심리적 욕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욕구진단검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1989년 11월에 한양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8명과 보훈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1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9개의 욕구력 즉 굴중, 성취, 친애, 공격, 지배, 정동, 과시, 성, 자율욕구 등을 조사하였다. 정상대조군으로 신체적으로나 시리적으로 건강한 정상 성인 23명을 대상으로 욕구력의 9개 척도를 조사하여 척수손상자군과 비교한 결과 정동욕구 성욕구 자율욕구 검사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바 앞으로 재활치료에 있어서 상기 욕구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심리적인 치료가 병합 된다면 척수 손상자에게 좋은 재활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척수손상자들이 신체적 결함이 있더라도 심리적으로라도 정상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참고문헌

1. 경제기획원, 통계연감 1984, 42~43, 1985.
2. 고현운: 척수손상자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재활의학협회지, 21: 266-275, 1987
3. 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479~482, 1982.
4. 조두영: 척수의상환자심리. 정상의학보 8: 150, 1986.
5. 황정규: 욕구진단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1965.
6. Bedbrook G M: Treatment of thoracolumbar dislocation and fracture with paraplegia. Clin. Orthop 112: 27, 1975.
7. Bloch R F: Management of spinal cord

- injuries, Baltimore, Williams & Wilkins, 1986.
8. Bodenhamer E, et al: Staff and patient perceptions of the psychological concerns of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m J Phys Med* 62 : 182, 1983.
 9. Cook D W : Psychological aspects of spinal cord injury, *Rehabil Counsel Bull* 535, 1976.
 10. Green B C, et al : Self-concept among persons with long-term spinal cord injury. *Arch Phys Med Rehabil* 65 : 751, 1984.
 11. Guttman L : Spinal cord injuries : Comprehensive management and research. Oxford, Balckwell, 1973.
 12. Guttman L : Spinal cord Injuries, 2nd Ed.,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Oxford, 1976.
 13. Harris P, et al : Psychological and social reactions to acute spinal paralysis, paraplegia 11 : 132, 1973.
 14. Hohmamm G W : Psychological aspects of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the spinal cord injured person. *Clin, Orthop, Rel, Research* 112 : 81, 1975.
 15. Kottke F J, et al : Krusen's handbook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1982.
 16. Lawson N C : Significant events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 The spinal cord patient's point of view. *Arch Phys Med Rehabil* 59 : 573, 1978.
 17. Mueller A D : Psychologic factors in rehabilitation of paraplegic patients. *Arch Phys Med Rehabil* 53 : 151, 1962.
 18. Murray, H A, et al : Exploration in personality, N.Y., Oxford Univ. Press, 1938.
 19. Siller J : Psychological situation of the disabled with spinal cord injuries. *Rehabil Lit* 30 : 290, 1969.